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광주역~송정역 '레일 벨트' 뭉치

6·13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번엔 해결을

<1> 광주역 거점화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의 현안은 현안들이 부상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낮은 실현 가능성, 과거 주장 반복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일보가 지역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미래비전을 고민하는 바람직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관련기사 3면>

새마을호·무궁화호 운행 보통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해 역 존치 문화·청년·점단산업 추가해야

광주역에 문화·청년·점단산업·행정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속철이 사라지면서 주변지역은 물론 구도심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광주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송정역과 연계할 수 있는 랜드마크 만들어 동구~광산구~북구를 잇는 새로운 광주 레일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주송정역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일원화되면서 광주역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각각 20편만 운행하던 하루 평균 1100여명(주말 1500여명)이 오가는 보통역으로 전락했다. 수년간의 일원화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소지각간 이견을 보이던



민유라-켄린 꿈의 무대 진출 19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쇼트댄스에서 한국의 민유라-알렉산더 켄린이 연기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20·21면 /연합뉴스

서 정부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후 광주역의 기능 회복을 위해 2016년 12월 19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를 개통했으나, 광복할만한 성과없이 이후 역 기능의 폐지와 존치를 둘러싼 논쟁만 반복됐다. 현재 광주역을 운영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광주송정역으로 통합한 뒤 광주역은 다른 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역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기능을 더해 주변지역-구도심의 거점으로 집중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 대립한 것이다.

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가운데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제기반형

사업 대상으로 광주역을 선정할 것이다.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낼 방침으로, 오는 22일 북구 무등로 광주역 3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포지엄'에서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안을 관련 교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20일에는 대구에서 광주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달빛내륙철도'(예산 6조3087억원) 조기 실현을 위한 실무협의 회를 갖는 등 최근 광주역의 기능을 존치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일부 전문가는 여기에 지역 내 '안전한 합'을 전제로 고속철의 광주역 재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지역공약인 '광주역의 아시아문화관문으로 재조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광산구 광주송정역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광주역을 북구는 물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역을 존치하면서 서둘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유동인구를 늘리면서 지역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경쟁 돌입

전남도, TF 발족키로

전남도가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일명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솔라시도(구성지구) 스마트시티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도 관계자,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실무

형 조직으로 태양광 에너지, 자율주행, 스마트 팜 등 분과로 구성된다.

하반기로 예상되는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경쟁에 대비해 인건비, 성남 판교, 고양 장항지구 등과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범도시에 선정되면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예산 지원의 토대를 갖추 수 있다"며 "TF

는 비교우위 개발계획을 발굴하고 제안서 작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실무를 맡아 시범도시 공모 신청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라시도 조성 사업은 해남 구성지구(2094만여㎡), 영암 삼호지구(866만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보성건설, 한양건설, 전남도, 전남 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해남 구성지구에서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콘셉트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100MW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대규모 스마트 팜 클러스터 조성 등을 사업계획에 담았다.

에이스 회원권거래소, 삼한기업, 한국관광공사, 전남도가 참여한 서남해안레저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영암 삼호지구에서는 공유수면(간척지) 매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오는 4월께 도지 등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6기 원우 모집 호남 리더에서 글로벌 리더로

1·2·3·4·5기 주요 강사



최진석 이흥렬 박정자 박재동 손미나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6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

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호텔식사 제공)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광주일보

올 지방공무원 광주 562명·전남 2004명 뽑는다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은 역대 최대인 2만5692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562명, 전남도는 2004명을 각각 새로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총원계획'에 따라 올해 총 2만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689명(28.4%) 늘어난 것이다. 전체 채용 인원 중 퇴직자 총원 등을 제외한 순수 증원규모는 1만457명(40.7%)이다.

직렬별로 보면 올해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만784명을 각각 뽑는다. 7·8·9급 채용규모는 작년보다 3281명이 증가한 1만8719명이다.

사회복지직은 작년 12월 중순 1489명을 추가로 선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정시추가모집] 2018. 2. 22(목) ~ 23(금)
[대학원추가모집 / 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2018. 2. 19(월) ~ 22(목)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